

결혼이주여성의 신앙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비교를 통해서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Spirituality in the Lives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in Korea: Through Comparison between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오혜정 (Hye Jeong Oh)*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ain deep understanding on the significance of spirituality in the overall experience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in Korea. Total of ten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five of whom are Christians and the rest are non-Christians were recruited as study participants. Data were collected by one-on-one interviews and analyzed by Giorgi's phenomenological study method to look into participants' experiences in depth. The statements of Christian study participants were structuralized with 4 intrinsic themes of 'burnout from tough daily lives', 'difficulty and loneliness of life as a migrant', 'receiving both support and scars from church and Christians' and 'having confidence and hope with new perspectives' while those of non-Christian study participants were derived as 4 themes of 'burnout from tough daily lives', 'difficulty and loneliness of life as a migrant', 'receiving both consolation and wounds from surrounding people' and 'growing through hardship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some implications for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on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Key Words :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spirituality, phenomenological study,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migrant ministry

이 논문은 기독교학문연구회와 세계관연구소에서 주관한 2017년 <신앙과 학문> 논문제안서 공모전 수상 논문입니다.

* 총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 전공 박사과정(Chongshin University),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hyejeong.oh@gmail.com

2018년 02월 09일 접수, 03월 15일 최종수정, 03월 20일 게재확정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은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통계청(2017)에 따르면 2016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20,591건(전체 혼인 중 7.3%)으로 이 중 외국인 여자와의 혼인은 14,822건에 달하며,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2016)은 국내 다문화가족의 수를 278,036 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상당수는 한국 생활 내지 결혼 생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결혼이주여성의 86.7%는 언어 문제,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정해숙·김해숙·이택면·마경희·최윤정·박건표·동제연·황정미·이은아, 2016), 관련 선행연구도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 및 가족생활, 자녀양육, 사회문화적 적응, 심리·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함을 보여준다(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김한성·이유신, 2013; 민무숙·김이선·주유신·이정연, 2013; 이은주·전미경, 2014; 김진·이종운·김영숙, 2015; 박영주·윤동화·김원진, 2015; 신혜정·노충래·허성희·김정화, 2015; 박현선·정수정, 2017).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국내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역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이주민 사역의 시작은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공장 취업 등으로 수천 명의 외국인이 입국하면서, 외국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내 교회들의 이주민 사역이 시작되고 1990년대 초에 들어 ‘희년선교회’와 ‘외국인근로자선교(현재 ‘나섬공동체’의 전신)’,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현재 ‘안산이주민센터’의 전신)’ 등의 이주민선교 관련 단체들이 설립되었다(장영신·정상우, 2015; 문창선, 2016).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이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이주민 사역도 빠르게 늘어 외국어 예배 또는 이주민 예배를 통한 사역, 한글교실이나 이주민센터 등 교회 부설 기관을 통한 사역, 독립적인 비영리단체를 통한 자체 또는 정부 위탁 사역 등 그 유형도 다양해졌다(박천웅, 2010; 박홍순, 2013).

그런데 이러한 사역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어떠한 의미와 기여를 갖고 있을까? 선행 연구들은 기독교 신앙생활 경험이 개인의 정체성과 자존감, 내면의 상처 치유와 회복 등의 내면적인 부분(McIntosh, Silver & Wortman, 1993; Francis & Kaldor, 2002)에서부터 가족관계와 자녀양육에 대한 도움, 지역사회 내 공식적·비공식적 지지체계 구축과 같은

가족 및 사회적 영역(Bradley, 1995; Nooney & Woodrum, 2002; Stone, Cross, Purvis & Young, 2003) 등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정효진(2003), 전병철(2013) 및 Morris, Vokes & Chang(2007), Yoon, Lee, Goo & Yoo(2010), Baeq, Lee, Hong & Ro(2011), Oh(2013) 등은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에서 이민자들의 정착과 적응에 있어 한인교회를 통한 신앙생활 경험이 매우 중대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결혼이주여성 내지 다문화가족 사역에 관한 연구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문화가족 사역의 당위성을 목회신학적 관점, 선교적 관점 등에서 확인하고 앞으로 교회의 다문화가족 사역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거시적 관점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강영실, 2010; 이광희, 2010; 임성빈, 2013; 한혜빈, 2014; 이수환, 2015; 최신일·황병준, 2015).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역의 내용과 효과가 어떠한지, 결혼이주여성에게 신앙생활 경험이 어떠한 의의와 기여를 갖는지, 반대로 어떠한 한계를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앙생활 경험이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가족생활, 자녀양육, 사회문화적 적응, 사회생활 등의 삶 전반에 대하여 갖는 의의와 본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이고 독특한 경험 및 그에 대한 생각과 느낌, 해석 등으로부터 깊이 있고 풍성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신경림·조명옥·양진향, 2004).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신앙생활 경험을 들여다봄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의 의의와 가치, 한계 등을 고민함에 있어 도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목소리에 주목함으로써 현재 사역에서 대상화되어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주체’로서의 지위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 고찰

1.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어려움

결혼이주여성의 신앙생활 경험이 삶에 대해 갖는 의의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그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그 삶과 어려움을 온전히 이해하

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의 과정에서부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 국제결혼의 다수(72%)를 차지하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에 있어, 한국인 남성은 주로 경제력이나 외모, 나이, 장애 등의 콤플렉스로 인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반면 외국인 여성의 상당수는 가난으로부터의 탈출, 가족 부양, 합법적 입국 등을 위하여 선택하는 등 결혼을 둘러싼 배경과 이해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김이선 외, 2006). 또한 결혼중개업체를 통하는 경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혼인이 이루어지고 비용 발생이 수반되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부부관계 내 위계(hierarchy)가 만들어지며 결혼이주여성의 권리와 지위가 매우 취약해지기도 쉽다(박미정, 2011).

결혼 과정의 문제는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국제결혼 가정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부부 및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생각과 의견의 차이 또는 문화적 차이 등을 적절하게 표현하며 조율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갈등을 경험하기 쉬우며, 그 외에도 경제적 어려움,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적응, 자녀양육과 교육, 차별과 편견 등의 어려움들도 크다(김이선 외, 2006; 김한성·이유신, 2013; 박영주 외, 2015; 박현선·정수정, 2017). 실제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2016)에서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86.7%)은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주요 어려움은 Table 1과 같이 언어 문제(36.7%), 외로움(36.5%), 경제적 어려움(31.9%),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25.2%), 문화 차이(23.7%) 편견과 차별(14.8%), 가족 갈등(12.7%)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 폭력에 관한 실태조사(2008)에서도 다문화가족은 일반적인 한국인 가정보다 부부폭력(47.7% > 40.3%), 특히 중대한 신체적 폭력(16.9% > 4.7%) 등에서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 내 어려움과 갈등이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

Table 1 Difficulties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living in Korea

(unit: %, plural response possible)

Difficulty	Loneliness	Family conflict	Raising child	Public organization usage	Economic hardship	Language problem	Cultural difference	Prejudice & discrimination	Others	None
Response	36.5	12.7	25.2	8.6	31.9	36.7	23.7	14.8	0.5	13.3

Jung et al.(2016). *A Study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5*(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2016-03). p.132

이러한 어려움과 고충은 취약한 사회적 지지, 다시 말해 국제결혼으로 인해 원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 등의 사회적 지지를 상실한 후 낯선 한국 땅에서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 외 별다른 지지체계 없이 살아감으로 인해 더욱 배가되기 쉽다(이형하, 2010; 민무숙 외, 2013; 김진 외, 2015). 실태조사에서도 응답 이주여성의 약 30% 이상이 가족 이외에 고민이나 어려움 등을 의논할 수 있는 사람, 취미나 여가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정해숙 외, 2016). 관련 연구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김순규·이주재, 2010; 김미원, 2014; 신혜정 외, 2015), 양육태도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등 자녀양육에 있어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며(김혜금·조혜영, 2013; 정명희, 2013), 결혼이나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삶에 대한 만족 내지 삶의 질에 기여함을 보여줌으로써(이혜경·전혜인, 2013; 신혜정 외, 2015), 사회적 지지의 취약성이 가져올 어려움과 문제의 중대성을 시사했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구조적 속성에 초점을 두어 반-억압 실천의 관점에서 조망해 볼 수도 있다. 반-억압 실천(anti-oppressive practice)은 사회구조의 불평등과 억압에 관심을 갖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복지를 추구하는 실천이다(양만재, 2016). 반-억압 실천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직면하는 어려움, 즉 위계와 권력관계에 가까운 국제결혼, 혼인기간이나 한국 국적의 취득 등과 상관없이 여전히 주변인이자 이방인으로 살아감, 역할과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는데 무력해짐, 한국 사회와 문화에 철저히 적응하고 동화될 것을 요구받음, 가정폭력 및 사회로부터의 편견과 차별 등은 Young(1990)이 억압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시한 착취(exploit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무력성(powerlessness),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 정신적·물리적 폭력(violence)으로 이해할 수 있다.

Table 2 Understanding lives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based on Young(1990)'s categorization of oppression

Oppression(Young, 1990)	Application to lives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Exploitation	International marriage bearing hierarchy and resulting exploitation
Marginalization	Living a life as marginal person or stranger
Powerlessness	Being powerless in asserting one's roles and rights
Cultural imperialism	Required to be assimilated to Korean society and culture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society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은 상당히 힘겹고 취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어려움과 문제에 관하여는 개인과 가족, 사회적 차원 모두가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취약성과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할 때, 결혼이주여성의 신앙 생활 경험이 삶에 대해 갖는 의미를 보다 깊이 있고 풍성하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2. 결혼이주여성의 신앙생활 경험

교회용어사전(2013)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경건한 자세로 모든 행동이나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하며 신앙생활을 위한 거룩한 습관으로 성경을 읽을 것(렘 15:16), 기도할 것(요 14:13-14), 교회 모임에 참석할 것(히 10:25), 봉사할 것(롬 12:9-13), 헌금할 것(말 3:10), 복음을 전할 것(딤후 4:2) 등을 설명한다. Stone 등(2003)은 이러한 신앙생활의 의의를 크게 인식의 틀 제공과 사회적 지지의 두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은 기독교인에게 자신과 타인의 삶과 상황, 특히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고유하고 독특한 ‘인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통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며 기독교인에게 사랑과 돌봄, 위로, 격려, 소속감 등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Stone et al., 2003: 331).

실제로 Francis와 Kaldor의 연구(2002), Nooney와 Woodrum의 연구(2002) 등은 하나님을 믿음과 교회 출석, 기도 등이 스트레스 대처, 심리적 행복 등에 기여함을 보여줌으로써 삶과 상황, 고난 등에 대한 인식의 틀로서의 신앙생활의 긍정적 기여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McIntosh 등의 연구(1993)는 기독교인이 교회 및 성도들과의 관계 및 교제를 통해 소속감, 스트레스 극복, 심리적 안녕감 회복 등에 도움을 얻는 것을 보여주었고, Bradley(1995)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의 경우 더 큰 사회적 관계망을 갖고 더 많은 상호교류 및 활동을 함으로써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발견하여 사회적 지지로서의 신앙생활의 의의를 보여주었다. 한편, Stone 등(2003)은 신앙과 교회 공동체, 그 외 지역사회를 통한 지지를 총 26개 지지로 분류하여 이들이 위기에 처한 개인에 대해 갖는 의의와 기여를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 신앙과 중보기도, 기도, 배우자, 기타 교회 지원이 상위 5개 지지로 나타나 개인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신앙, 기도)와 다른 성도들의 기도, 교회 기관을 통한 원조와 지원, 즉

공식적 및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가 가장 큰 지지임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주민의 신앙생활 경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국 내 한국인 이민자들의 정착과 적응에 있어 한인교회와 신앙생활이 갖는 영향 내지 의의를 살펴본 연구들(전병철, 2013; Yoon et al., 2010; Baeq et al., 2011; Oh, 2013)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이민자들의 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들(정효진, 2003; Morris et al., 2007)은 신앙생활이 다양한 역경과 고난을 훈련이자 또 다른 기회로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문화사회적 적응을 이루어가고 외로움과 향수병 등을 극복해가는 등 그 정착과 적응에 있어 큰 힘과 도움이 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있어서도 신앙생활 경험이 긍정적 기여를 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하지만 그간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 하여, 결혼이주여성 또는 이주민을 비롯하여 여러 어려움과 위기 등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신앙생활 경험이 갖는 의의와 가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힘겹고 고되게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살아냄에 있어, 기독교 신앙생활 경험이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의도적 표집 방법을 통해 교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해 소개받은 총 10명의 결혼이주여성이다. 가족생활,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적응, 사회생활 등 결혼이주여성의 삶 전반에 대한 풍성한 경험을 담아내기 위하여 한국에 거주한 지 1년 이상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되, 신앙생활 경험의 의의와 본질을 비기독교인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기독교인 결혼이주여성과 비기독교인 결혼이주여성을 각각 5명씩 선정하였다. 기독교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매주 일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로 선정하였고 세례여부, 교단이나 예배 언어 등은 제한하지 않았으며, 비기독교인의 경우 종교가 없는 사

람들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10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평균 36.5세로, 주로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출신이며 이 중 6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다. 대부분 혼인 중이지만 3명은 이혼하였으며, 자녀에 관하여는 자녀가 없는 경우부터 5명인 경우까지 그 수가 다양하고 자녀의 연령 또한 영유아에서부터 성인에까지 이른다. 월 평균 가계 수입은 기독교인의 경우 평균 128만원, 비기독교인의 경우 평균 200만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보다 취약한 편이었다.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장로교)에서 매주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이 중 2명은 영어 예배, 1명은 베트남어 예배에 출석하고 있다. 4명은 세례교인이고 1명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 전체 중 2명은 결혼 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3명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3, Table 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의 권리 및 윤리적 측면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 각각에 대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 연구 과정 특히 일대일 면접 과정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 면접내용이 녹음 및 필사되어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됨, 연구 후에는 자료가 완전히 폐기됨, 연구결과에 있어 개인정보 및 익명이 보장됨, 연구 도중에 언제든지 중단 또는 철회할 수 있음 등을 알리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Table 3 Basic characteristics of Christian study participants

	Age (yr)	Came from	Korean nationality	Married in	Children information	Employed (Family income)	Gov'tal support	Spiritual life
A	43	China (Ethnic Korean living in China)	Yes	1995 (Divorced in 2014)	Daughter(22) Son(17) with disability Daughter(12)	Yes (₩ 600,000)	Yes (₩ 500,000)	Started to go to Korean service of Korean church in 2005 and received baptism in 2008. Has participated in the ministry such as small group meeting, discipleship training, etc.

<continued>

	Age (yr)	Came from	Korean nationality	Married in	Children information	Employed (Family income)	Gov'tal support	Spiritual life
B	30	Vietnam	Yes	2006 (Divorced in 2011)	Son(11) with disability	Yes (₩ 1,000,000)	Yes (₩ 250,000)	Started to go to Korean service of Korean church in 2013 and received baptism in 2014. Now, goes to Vietnamese service of Korean church and joins the ministry actively.
C	32	Philippines	No	2012 (Divorced in 2012)	Son(5)	Yes (₩ 1,300,000)	Yes (₩ 120,000)	Started to go to church in the Philippines in 1995. In Korea, started to go to the service for people from the Philippines of Korean church in 2012 and received baptism in 2013. After the senior pastor was changed and the service for the people from the Philippines was closed in 2016, goes to Korean service of the same church.
D	31	Philippines	No	2012	Son(4) Daughter(1)	No (₩ 2,000,000)	No	Started to go to English service of Korean church in 2013 but didn't receive baptism yet. Participates in a Bible study group with other women from the Philippines, as well.
E	34	Philippines	No	2008	No child	Yes (₩ 1,500,000)	No	Started to go to church in the Philippines in 2005 and received baptism in 2006. After marriage, goes to English service of Korean church and participates in a Bible study group with other women from the Philippines, as well.

Table 4 Basic characteristics of non-Christian study participants

	Age (yr)	Came from	Korean nationality	Married in	Children information	Employed (Family income)	Gov'tal support	Religion
V	38	China	Yes	2005	Daughter(12) Son(10)	No (₩ 3,000,000)	No	No
W	45	China (Ethnic Korean living in China)	Yes	2000	Daughter(18) Son(13)	Yes (₩ 1,500,000)	No	No
X	35	Vietnam	No	2011	Daughter(5)	Yes (₩ 2,000,000)	No	No
Y	31	Vietnam	Yes	2013	Son(4)	Yes (₩ 3,500,000)	No	No
Z	46	Philippines	Yes	2000 (Husband is hospitalized since 2009)	Daughter (16, 14, 13, 11) Son(9)	No (₩ 0)	Yes (₩ 1,900,000)	No

2. 자료 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일대일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대일 면접은 2017년 8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별로 1-2회, 매회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면접 이후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일부 연구 참여자에게 전화로 문의하며 보완하였다. 비구조화된 개방면접 방법으로 진행하되, 연구 목적을 고려한 면접지침을 준비하여 적절히 활용하였다. 면접지침은 결혼 후 한국에서 이주여성으로 살아가는 삶 전반과 적응, 어려움과 극복, 사회적 관계와 지지 경험, 신앙생활 경험과 의미(기독교인 연구 참여자의 경우) 등에 대한 개방적 질문들로 구성하였으며, 학계 전문가의 검수를 받았다. 면접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음성 녹음한 후 필사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Giorgi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며 다양한 현상과 경험을 체험하는 일상의 세계에 주목하여, ‘일상적인 경험’의 의의와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였다(Giorgi, 1985: 8). 본 연구 역시 결혼이주여성 이 매일 마주하는 삶의 현장과 체험, 특히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수용과 극복에

주목하면서 그 가운데 신앙생활로 말미암은 고유하고 독특한 경험과 의미를 탐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에 Giorgi의 제안대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 참여자의 기술 내용, 즉 필사본을 반복해 읽으며 전체적인 상황과 내용을 파악하고자 했고, 다음으로 기술 내용을 연구 주제에 초점을 두어 의미단위로 구분해 나갔으며, 세 번째 단계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언어로 표현된 의미단위들을 이론적, 학문적 언어로 전환하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분석 과정을 통해 드러난 의미단위들을 종합하고 구조화하며 본 연구가 주제로 삼은 신앙생활의 경험의 본질을 도출하였다(신경림 외, 2004; 이남인, 2005).

연구의 엄격성을 제고하고자,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의 선 이해와 편견 등이 작용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인식과 자기반성을 반복하는 동시에 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드러나는 현상과 실재 파악에 집중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료 분석 결과를 검토 받음으로써 주제 도출을 비롯한 연구 내용이 올바른지 점검하는 동시에,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하여 기독교사회복지 분야를 연구하는 다른 박사과정생의 검토 및 지도교수의 자문을 통해 분석의 내용과 구조 등을 다듬으며 연구결과를 보완하였다.

IV. 연구 결과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의 경험은 189개의 의미단위로부터 32개 하위 구성요소, 13개 구성요소가 도출되어, ‘힘들고 고된 일상으로 인한 소진’, ‘낮선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외로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지지와 어려움을 모두 경험’, ‘신앙을 통해 삶을 다르게 바라보며 힘과 소망을 가짐’의 4개 주제로 구조화되었다(Table 5 참조). 반면 비기독교인 연구 참여자의 경험은 174개의 의미단위로 도출되어 27개 하위 구성요소, 11개 구성요소로 도출되어, ‘힘들고 고된 일상으로 인한 소진’, ‘낮선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외로움’,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와 상처를 모두 받음’, ‘힘겨운 시간을 통해 성장함’의 4개의 주제로 요약되었다(Table 6 참조).

이를 통해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삶이 고되고 힘든 가운데,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이겨냄에 있어 기독교 신앙생활의 경험이 고유하고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한편 교회생활 및 성도들과의 관계는 지지적인 동시에 한계도 내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Table 5 Themes of the experiences of Christian study participants

Elements	Themes
Driven to international marriage by poverty	Burnout from daily lives
Tired and depressed because of tough everyday lives	
Hurts and wounds by family	
Suffering from language barrier and cultural differences	Difficulty and loneliness of life as migrant
Hardships for foreign mothers to raise children	
Loneliness as strangers in Korea	
Degradation to inferiority and poverty	
Unchanging societ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oward migrants, which makes Korea remain unfamiliar	Receiving both supports and scars from church and Christians
Experiencing help and support from church and Christians	
Experiencing limitations and hurts from church as well	Having confidence and hope with new perspectives
Only God gives true comfort and hope	
Change of mind on life and its problems	
Accepting life as training and mission	

Table 6 Themes of the experiences of non-Christian study participants

Elements	Themes
Driven to international marriage by poverty	Burnout from daily lives
Hurts and wounds by family	
Regretting marriage	
Suffering from language barrier and cultural differences	Difficulty and loneliness of life as migrant
Hardships for foreign mothers to raise children	
Loneliness as stranger in Korea	
Socialized with surrounding people but still lonely	Receiving both consolation and wounds from surrounding people
Supported by community organizations	
Hurts by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on migrants	Growing through hardships
Feeling proud and worthwhile when studying, working or helping others	
Growing through hardships	

1.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의 경험

(1) 힘들고 고된 일상으로 인한 소진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은 가난한 원가족 부양의 책임, 현재 가족의 생계 부양의 책임, 가사와 육아 등의 여러 책임과 부담으로 지치고 소진되어 갔으며, 이러한 가운데 남편과 시댁을 비롯한 가족의 무시와 차별, 폭력은 큰 상처가 되어 연구 참여자들의 마음을 더욱 병들게 하였다.

① 국제결혼으로 내 물은 가난

연구 참여자들 상당수는 가난을 벗어나거나 가족을 부양하고자 국제결혼을 선택하였으며, 중개업체 또는 지인을 통해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개월 만에 결혼에 이르렀다. 배우자와 국제결혼, 결혼이주에 대해 충분히 알고 고민하지 못한 채 결혼한 셈이다.

외국 사람과 결혼하면 엄마, 아빠 도와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도 도와주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좀 더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참여자 B)

조금 머리가 이상해 보였어요. 정상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때 결혼회사 언니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누가 좋다고 하면 좋아해야지 그렇게 자꾸 이 사람 싫다, 저 사람 싫다 하면서 고르다가 나중에 좋다고 하는 남자가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한국 가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 때 제가 열여덟, 열아홉 살이었어요. 어려서 그냥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어려서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나서 3일 만에 결혼식 올렸어요. (참여자 B)

② 바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치고 우울함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일과 육아, 가사 등의 주어진 역할로 매우 바쁘고 힘든 일상을 보내며 소진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이처럼 바쁘고 분주한 데에는 가사와 육아에 동참하지 않는 남편, 가사 일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시댁, 생계 부양의 책임, 주변에 도움을 부탁할 사람의 부재 등 결혼이주여성의 취약한 지위와 여건에서 비롯한 측면이 상당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제가 할 일을 목록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배란다 청소하기,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청소와 정리하기, 이틀에 한 번 진공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기, 이런 식으로요. 이게 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선 다들 이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족을 섬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사해 했어요. 스스로를 그렇게 격려했어요. 그렇지만 매일 그렇게 집안일을 하면서 지쳐갔어요. 매일 이 집안일을 하는 게 정말 내 일인가.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보내신, 결혼하게 하신 목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참여자 E)

남편은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야 했죠. 그런데 일을 시작해서도 똑같았어요. 전 가족을 위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아까의 그 집안일들을 목록대로 해야 했어요. 너무 바쁘고 힘들고 지쳤죠. 저 자신은 없었어요. ‘나는 어디 있는 거지?’ 그렇게 저 자신에게 얘기했어요. 저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정말 저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제게는 한국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참여자 E)

③ 가족으로부터의 아픔과 상처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 및 가정생활에서도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였다. 부부갈등, 고부갈등을 비롯한 시댁과의 갈등을 경험하였고, 가족으로부터 존중과 배려를 받지 못 하고 소외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등의 가정폭력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아픔과 상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4시쯤 되면 제가 심장이 빨리 뛰어요. 조금 있으면 5시, 6시니까요. 남편이 곧 들어오니깐요. 남편 없이 혼자 있을 때가 안전한 시간인 셈이었죠. 그렇게 항상 무섭고 불안한 상태였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남편이 너무 무서웠어요. 항상 소리치고 욕하고. 그리고 협박도 했어요.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도 한국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제 남편이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눈물이 많이 나서 잠시 멈춤). 많이 겁나고 무서워요. 한국 사람에 대한 공포? Phobia 있어요. 마음 여기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람 만날 때면,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이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참여자 C)

시댁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그 강아지에게 모든 애정을 다 쏟았어요. 저한테 아무도 없으니까. 남편이나 시댁 가족들은 제게 진짜 가족이 되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그 강아지가 마치 딸인 양 그렇게 예뻐했어요. 딸처럼 대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강아지가 죽었죠(눈물). 그 때 정말 슬펐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참여자 E)

(2)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외로움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은 고국을 떠나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낯설음과 불편함, 외로움 그리고 때로 차별과 편견 등을 경험한다.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부터 가족관계, 자녀양육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한편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보호받는 데 있어서도 취약한 모습이다.

①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언어의 장벽이다. 남편을 비롯하여 가족과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이해하기 어렵고, 갈등이 생겼을 때에도 해결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문화풍습, 특히 가부장적 문화 등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상당하였다.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시부모님이나 시누이가 뭐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 하고 또 제가 한국어로 말할 수 없으니까 그저 ‘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지 못 했든 아니면 동의하지 않든, 항상 그냥 ‘네, 네, 네’라고 말해요. (참여자 E)

결혼 후 한국에서 지내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었어요. 모든 것에서 필리핀과 달랐죠. 쉽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현실을 알아가게 되었어요. 문화적 차이가 컸어요. 필리핀에선 괜찮았는데 여기선 안 되는 것들도 많고, 필리핀에선 하지 않는데 여기선 당연하게 하는 것들도 많아요. 필리핀에선 할머니 댁에서 가족이 모이거나 하면, 할머니가 요리하시고 그러셨어요. 서로 나누어서 하고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에선 주말에 어머니, 아버님이 오시면 아무 것도 하지 않아요. 제가 다 해야 해요. 제가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해야 해요. 처음에 제가 몰라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게으른 사람 취급했어요. 잠꾸러기라고 하고 게으르다고 했어요. 장난치듯이, 놀리듯이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참여자 D)

한국어를 배우고 싶지만, 일과 육아로 분주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과 여유는 부재하였다. 한국어 교육 제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함이 중요함을 확인하게 된다.

혼자 아이를 키우니까 한국어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복지관 등에 갈 시간이 없어요. 일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보니까.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못 하는 상태로 있으니까 이게 힘들죠. 한국에서 사는 데 있어서. (참여자 C)

② 외국인 엄마로 자녀를 키우는 고충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 양육과 교육, 어린이집이나 학교와의 소통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자녀의 나이가 어린 때에만 국한되지 않아 자녀 연령이 높은 연구 참여자 역시 자녀가 커가면서 겪는 과업들, 예를 들어 진로, 진학, 취업, 결혼 등 모두 한국에서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에 ‘엄마 역할’ 수행에 대한 고민이 컸다.

어린이집에서 하는 말들 제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지 못 하지만, 그렇지만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아이 어린이집 걱정 되요. 혹시 제가 한국말을 말하지 못 하고 듣지 못 하니 까, 외국인이니깐 그래서 아이에게 나쁘게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어요. (참여자 C)

큰 애가 커가니까 결혼 그런 게 또 걱정되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이제 스물. 그때는 뭘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딱 가니까 결혼할 때는 또 어떡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되니까. 다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경제적으로 제가 돈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게 고민이 많은 거 같아요. (참여자 A)

③ 타향살이의 외로움과 우울

연구 참여자들은 낯선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오면서 고국의 가족과 친구, 이웃 등의 사회적 지지가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도움을 주고받거나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이웃 등의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갖추지 못 하면서 많은 외로움과 어려움, 우울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특히 이혼하여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더욱 심각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한 번, 두 번 도와주지 계속 도와주는 건 귀찮아하잖아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외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참여자 B)

예전에 교회에서 필리핀 예배 도와주는 집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꾸 한국 사람들 사귀어야 한국 말도 늘고 한국 생활 적응도 잘 한다고. 그런데 한국 사람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서 사귀어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갑자기 누구와 친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참여자 C)

④ 부족한 사람, 취약한 사람으로 전락함

연구 참여자들은 언어의 장벽과 낯선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적응, 한국 사회의 차별 또는 편견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을 시작으로 학업이나 취업, 사회생활 등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스스로 무능한 사람이 된 것 같다’며 많이 우울해했다.

가끔 제가 아무 것도 아닌 기분을 느껴요. 하찮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만 같아요. 한국에선 말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필리핀에선 제일 좋은 요리학교를 나왔는데, 결혼 전엔 제일 좋은 레스토랑에 다녔었는데 말이에요. 그 동안의 제 시간들, 제가 공부하고 일한 시간들이 모두 사라졌죠. 의미 없어졌죠. 정말 제가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죠. 결혼 전엔 제가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공부든 일이든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여기선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이들 일만 해도 그래요. 내년이면 어린이집을 가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고, 알아봐야 해요. 그런데 전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집 근처에 어떤 곳들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여기서 뭘 하려 해도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참여자 D)

⑤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여전히 낮은 한국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면서, 여전히 한국 사회 내 이방인이자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한번은 다른 필리핀 사람 만나서 같이 필리핀 말로 이야기하는 중이었어요. 갑자기 저희한테 “야, 한국말로 해야지” 그랬어요. 모르는 사이인데, 함부로 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하철 탔을 때도, 그렇게 우리끼리 필리핀 말로 얘기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시끄럽다”고 했어요. 만약 다른 한국 사람이 그랬으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참여자 C)

어린이집에서도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말이 늦는 거 같다,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애를 잘 못 보는 것 같다 등등. 그런 말 들었을 때, 상처가 되었어요. 아이가 늦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건데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그렇게 취급했어요. (참여자 C)

(3)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지지와 어려움을 모두 경험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를 통해 재정 문제, 낮은 한국생활의 어려움 등에 대해 도움과 지원을 받는 한편, 성도들과의 교제나 소모임을 통해 기도와 지지를 받는 등 공식적 및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를 모두 제공받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 참여자는 언어의 제약으로 인해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 또는 성도들의 편견이나 동정 등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어 보다 성숙한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의 모색이 필요해 보였다.

① 교회 및 성도들을 통해 많은 도움과 지지를 경험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로부터 생계비나 자녀 학비 등의 경제적 지원 또는 자녀의 출생신고, 양육권 소송 등 법적·행정적 사안에 대한 지원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구역과 성경공부 모임을 통해 성도들과 기도과 위로, 지지를 주고받고 있다. 특히 성도들과의 깊이 있는 교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낯선 한국 땅에서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기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 둘째가 아프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말로만 괜찮다고 해요. 그냥 말로만 그러지 정말로 걱정하고 신경 쓰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 사람들은 기도해 주고,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저 위해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정말 가족이구나, 그렇게 느껴요. (참여자 A)

목사님이 집사님 한 명을 저를 도와주도록 정해 주셨어요. 집사님이 병원에 갈 때 차 태워 주시고 같이 다녀 주시고, 병원에서 이야기 하는 거 통역도 해 주시고, 많이 도와 주셨어요. 그리고 아이 낳았을 때, 목사님이 아이 주민등록 하는 것도 도와 주셨어요. 사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하는 거 어려웠어요. 제가 한국말 못 하고 이혼한 상태고 하니까, 아이가 한국인인 걸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 때 목사님이 같이 가 주셨어요.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참여자 C)

교회 친구들이 너무 소중한요. 교회 친구들과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경공부를 하고 기도해요. 함께 가족 이야기도 하고, 힘들거나 상처 받은 이야기도 해요. 교회 친구들 때문에 혼자자 아니라고 느끼고, 힘을 얻고 그러죠. 교회 친구들 말고는 없어요. (참여자 D)

② 교회생활 가운데 어려움과 상처도 경험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다. 우선 한국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연구 참여자는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교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고충이 컸다.

한국어 예배는 사실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성경이나 찬송가를 읽을 수도 없고, 설교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고, 예배 순서를 제가 쫓아갈 수도 없어요. 힘들고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 해요. 어떤 사람은 ‘한국어 예배드리면 한국말 배울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사실 저는 예배를 한국말 공부하려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드리는 건데 아무 것도 듣지 못 하는 거죠. (참여자 C)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고, 교회에서 이주민을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는 동정 역시 또 다른 차

별로 느껴지기에 반갑지만은 않았다.

밖에서 만나면 친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만나면 오히려 남 취급해요. 그래서 ‘뭐지?’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 분이 사람을 가리는 것 같았어요. 잘 살고 멋진 사람한테는 잘 하고, 저는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많이 상처 받았었어요. (참여자 A)

지금 목사님은 필리핀 사람들은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보세요. 예전 목사님은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을 다르게 보는 것, 구분하는 것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은 도와줘야 하는 사람으로만 여겨요. 그래서 교회에서 도움 주려고 하는 건 좋지만, 그렇지만 한국 사람과 필리핀 사람을 정말로 똑같이 대한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참여자 C)

(4) 신앙을 통해 삶을 다르게 바라보며 힘과 소망을 가짐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의 삶은 비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편이었고, 이혼하여 혼자 자녀를 키우는 연구 참여자가 세 명, 그 중 장애아를 키우는 연구 참여자가 두 명이나 되었다. 힘들고 고된 삶 때문에 때로 우울, 스트레스, 외로움 등을 맞볼 때도 많았다. 그러나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와 지지를 얻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현재의 어려움을 훈련 내지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등 비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모습을 보였다.

①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오직 주님 뿐

연구 참여자들은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살아 가고 있다. 결혼생활 또는 낯선 한국에서의 삶으로 힘들거나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를 얻고, ‘천국’의 소망을 떠올리며 이겨낸다.

아, 저는 힘들 때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둘째가 장애가 있으니까, 더 힘들 때가 많거든요. 힘들고 우울하고 외롭고 그럴 때가 많은데, 또 몸이 안 좋아서 더 힘들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설 수가 없고.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게 많이 위로가 되요. 우리가 세상을 꼭 살지 않잖아요. 누구나 죽을 건데,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천국에 갈 거라는 생각, ‘천국에 갈 거야’ 이 생각이 많이 힘이 되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참여자 A)

② 삶과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과 시각의 변화

고되고 힘든 삶은 여전하지만, 삶과 역경을 바라보는 연구 참여자들의 시각과 마음은 다르다. 예전처럼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바라보지 않고, 미래에 대하여도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삶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믿으며, 심지어 자신에게 상처를 준 남편을 용서하고 자녀의 장애 또한 축복으로 받아들인다.

그때는 몰랐는데. 교회 안 다닐 때는 진짜. 신랑도 왜 이런 애(장애아) 낳았냐고 그러고(눈물). 나도 엄청 속상했고 왜 진짜 이런 애를 낳았을까 나도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 하나님이 애를 통해서 나를 교인으로 부르시고, (참여자 A)

교회에 다니지만 사는 건 그냥 똑같아요. 지금도 돈 없고 일하는 거 힘들고 똑같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 생각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예전엔 걱정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걱정이 정말 컸어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하지만, 옛날처럼 마음 힘들지 않아요. (참여자 B)

하나님께서 왜 저를 한국으로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외로울 때도 많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만들어 주신 거라고 믿어요. 저와 저희 남편을 만나게 하고 결혼하게 하셨다고 믿고, 또 우리 아이들을 주시려고 계획하셨다고 믿어요. (참여자 D).

③ 힘겨운 삶을 사명이자 훈련으로 받아들임

연구 참여자들은 힘겹고 고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된 다며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 내지 훈련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사는 게 ‘사명’이나 ‘선교’처럼 느껴져요. 제가 이곳에서 해내야 할 임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고 싶은 것, 편안한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만큼 신앙적으로 자라고 있어요. 제게 전쟁터 같아요. 힘들지만 계속 싸우고 이겨내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께 의지하게 되고, 간절하게 찾게 되고, 주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게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예전보다 훨씬 더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게 되고, 주님께 붙들려 있게 되는 거 같아요. 아마 신앙이 없었으면 이혼했을 것 같은데, 신앙이 있으니까 이겨내야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니까, 여기서 잘 살아내고 이겨내야죠. (참여자 E)

2. 비기독교인 연구 참여자의 경험

(1) 힘들고 고된 일상으로 인한 소진

비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도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난으로부터의 탈출 또는 가난한 가족의 부양을 위해 소위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으로 왔지만, 여전히 힘겨운 삶은 계속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에게 서운하고 상처 받을 때가 많았고,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의 고충 등으로 힘들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어려움들로 결혼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① 국제결혼으로 내 몰은 가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가난으로부터 탈출 또는 원가족 부양 수단으로 국제결혼을 결정했으며, 중개업체나 지인을 통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에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목표가 그거 하나였어요. 한국에 무조건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돈 때문 아니라고 하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물론 돈 때문만은 아니지만요. 사실 여기 시집오기 전에 중국에서 엄마아빠를 경제적으로 모시고 살았거든요. 제가 일해서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고 싶은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뿐 아니라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참여자 W)

② 가족으로부터의 아픔과 상처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으로부터 서운함과 외로움, 차별이나 편견을 비롯하여 부부갈등과 고부갈등 등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도 경험하였다.

싸운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저는 말을 못 해요. 한국말 못 하니까 저는 말 못 해요. 남편이 한국말 잘 하고 나이드 많고 그러니까. 열세 살 많거든요. 그래서 싸우면 남편만 소리쳐요. 사실 선생님, 싸우면 남편 무서워요. 남편이 소리 많이 지르고 물건도 던져요. 그래서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저는 여기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참여자 X)

가족이 모이면 더 외롭고 더 힘들어요. 저희 가족 모두 모였을 때 아주버님이 뭐 물어봐요. 그런데 저 잘 못 알아듣고 제가 한국말을 잘 못 해요. 가족들 결국은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저

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 해요. 그래서 가면 혼자 있어요. 조카들도 저 무시해요. 그래서 가족 모이는 거 싫어요. (참여자 X)

남편 외도 의심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게 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정말 외도한 거 맞으면 그러면 나는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만 남편 외도가 정말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남편이 정말 외도한 게 아니면 내가 미친 사람인 거죠. 비정상인 거죠. 그런데 그거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정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 의심할 만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확실한 거 뭘 잡은 건 아니예요. 힘들었어요. (참여자 W)

③ 결혼을 후회함

남편, 시댁 가족 등과의 갈등 및 그로 인한 상처, 그리고 바쁘고 힘든 일상으로 인해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을 후회하고 있었다.

저는 부부싸움 하면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사실 싸울 때면 너무 무서워요.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혼 생각할 때 많아요. 그래서 여러 생각해요. 왜 나는 이렇게 사나, 왜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인가. 생각 많이 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제 삶이. 제가 슬픈 날이 많아요. 슬픈 때가 많아요. (참여자 X)

신혼인데 주말 부부이고, 또 임신 중인데 그래서 남편 필요한데 같이 있지 않아서 참 힘들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항상 혼자 있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어, 나만 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족감이 없고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그런 생각 하게 되었죠. (참여자 Y)

(2)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외로움

비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 역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충, 이주여성으로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문제, 고국을 떠나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로움, 한국 사회의 차별과 편견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주민으로서의 어려움과 외로움은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 무능한 사람 나아가 미안한 엄마, 부끄러운 엄마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①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언어 문제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다. 특히 언어 문제로 인해 부부 및 가족 내 의사소통이 힘들고, 이는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부부싸움 등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 등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남편과의 부부 관계에서도, 제가 한국말을 조금 하지만 완전히 한국인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단어나 어려운 어휘는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어려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냥 생활에서는 문제없는데, 뭔가 좀 깊이 있는 이야기할 때, 문제나 어려운 부분 이야기할 때 힘들어요. 법적인 것, 전문적인 것 그런 것 이야기할 때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대화 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참여자 Y)

이제 10년 살다 보니까 한국말은 이제 나아졌지만, 지금도 문화 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은 집안일 안 해요. 아이 키우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답답했죠. 그런데 할 수 없죠.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같이 살지 않아서 한국 요리도 할 줄 몰라요. 아직도 한국 음식 잘 못 해요. 김치 못 담궜요. (참여자 V)

② 외국인 엄마로 자녀를 키우는 고충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한글 동화를 읽어주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비롯하여 숙제를 봐 주거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다른 엄마들과 만나고 사귀는 어려움도 컸고, 아이가 커 가면서 외국인 엄마를 부끄러워하거나 무시하는 문제도 생겼다.

제가 친구가 없으니까 우리 아이도 친구가 없어요. 놀이터에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들과 아이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끼리만 놀아요. 저희 아기와 제가 가면 같이 안 놀아줘요.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참여자 X)

똑똑한 엄마? 아이들한테 똑똑한 엄마라는 애기 듣고 싶어요. 만약 중국이었으면 제가 이것 저것 가르쳐 주고 해 주고 했을 텐데, 한국에서는 제가 한국말 잘 못 하고 잘 모르는 게 많아서 항상 답답해요. 엄마가 잘 하는 거 많구나, 잘 하는구나 그런 것 느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가끔은 “엄마, 이것도 몰라?” 그러거든요. 그럴 때 답답하고 속상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똑똑한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앞으로 한국말 더 열심히 공부해야죠. (참여자 V)

애가 다문화가족인 것, 엄마가 중국에서 온 것을 말하기 싫어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드러나는 것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제가 못 갔어요. 학교에서 엄마들 봉사하는 거 갈 때도, 엄마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도 제가 그래서 말 못 했어요. 우리 딸이 싫어해서 못 했어요. (참여자 W)

③ 타향살이의 외로움과 우울

비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 역시 한국 사회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가 매우 취약하기에, 외로움과 우울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부모, 친구 다 떠나서 오는 거잖아요. 마음의 허전함, 외로움 그런 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간절히 사랑해서 한 결혼 아니잖아요. 이런 심리적인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해서 한 결혼 아니고, 이 사람의 인성이나 성격 이런 거를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서 한 게 아니니까 사실 아는 게 없는 거고. 정말 무서웠어요. 남편 하나 믿고 온 거지만 막상 오니 무서웠어요. 그런데 무서운데 내 주변에 누구도 없는 거잖아요. 더 힘들죠. (참여자 W)

(3)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와 상처를 모두 받음

비기독교 연구 참여자들은 친구, 이웃 또는 같은 출신국 사람들 등 주변 사람들을 통해 많은 위로와 지지를 얻는 동시에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민지원센터 등의 지원기관을 통하여도 도움을 얻고 있다. 다만 깊이 있는 관계, 내면을 나누는 교제는 부족하여 여전히 외로움을 겪고, 때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편견과 차별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①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지만 여전히 외로움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엄마들이나 이웃을 통해 자녀교육 관련 도움을 얻기도 하고, 같은 출신국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생활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풀며 서로 위로를 나눈다. 그렇지만 깊이 있는 관계를 맺거나 내면적 지지를 나누기는 쉽지 않아서 여전히 외로울 때가 많다.

동네에 아들 친구 엄마 만나요. 학교에서 뭐 하는 거 있거나 할 때, 제가 잘 모르는 거 있을 때, 전화하고 물어보고 하면 잘 도와줘요. 그래서 엄마들 그렇게 만나고 해요.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외로워요. 친구 있고 뭐 만나는 엄마 있고 선생님 있고 하지만 사실 외로워요. (참여자 V)

여기서 같이 만나는 베트남 사람들? 언니들과 친구들과 같이 아이들 얘기도 하고 남편 얘기도 하고 그래요. 마음 답답한 거나 힘든 거 같이 얘기하고 스트레스 풀고, 시간 있을 때는 같이 베트남 음식도 해 먹고 그래요. 이렇게 모이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는 사람, 고민 나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 있기는 좀 어렵죠? (참여자 Y)

② 지원 기관을 통해 도움과 지지를 얻음

연구 참여자들이 주로 도움과 지지를 얻는 기관은 지역사회 내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기관들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관 및 기관 종사자를 통해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살아갈 힘과 지지를 얻고 있다.

어려울 땐 제가 복지관 물어봐요. 그렇게만 있어요. 만약에 뭐 애들 공부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복지관 선생님한테 상의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그 때 아니어도 무슨 일 있으면 제가 전화하거나 문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복지관 선생님 있어서 제가 혼자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힘이 되어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힘 얻으면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참여자 Z)

③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도 경험

연구 참여자들은 종종 결혼이주여성 내지 외국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비단 타인에게서만이 아니어서 시댁 가족, 심지어 남편에게서도 편견과 차별, 무시 등을 경험하곤 하였다.

시댁 식구들이 잘해 줘요. 그런데 잘해 주는데, 외국인으로 보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 눈에서 나는 결국 외국인으로밖에 안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참여자 Y)

우리 남편이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아파트도 있잖아요. 이렇게 살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편하게 사니까, 다들 편하게 사는 줄 알아요? 쉬운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결혼해서 온 외국 여자에 대해 낮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편하게 사는 거라고 그러면서, 진짜로 제 마음이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참여자 V)

(4) 힘겨운 시간을 통해 성장함

연구 참여자들은 힘겹고 고된 삶을 통해 보다 나은 자신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다. 공부나 일, 봉사 등을 통해 우울이나 외로움 등을 극복하기도 하고, 힘겨운 시간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 되고 강인해지는 등 성장하고 있다.

① 공부나 일 또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뿌듯하고 보람됨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공부나 일, 봉사 등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과 보람, 뿌듯함 등을 느끼며 그간의 우울함이나 외로움 등을 이겨낸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실천이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그들의 역량과 자원, 강점을 간과해 왔음을 볼 수 있다.

공부 하면서 제가 정말 만족감 느꼈어요. 어렸을 때 공부 못 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그 동안 살아온 거에 대해서 우울하고 아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때 공부하면서 너무 재미있고 좋았어요. 정말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공부가 정말 저를 살렸어요, (참여자 W)

고향에서 친했던 동생이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 자주 불러내서 “언니, 병원 어떻게 가?”, “언니, 이진 어떻게 해?” 그래요. 그래서 한 번씩 나가서 도와주고 그래요. 제가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열심히 도와주게 되요. 이렇게 만나서 도와주고 하니깐 기분이 좋아요. 같이 또 대화하고 웃고 같이 음식도 먹고 하니깐 그림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좋아져요. (참여자 Z)

② 힘겨운 시간을 통해 스스로 성장함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이주 후 한국생활에 적응 및 정착해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보다 긍정적이 되고, 강인해지며 성장하고 있다.

한국 생활에 있어서, 제가 적응하고 잘 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계속 노력하고 배우자 이렇게 생각해요. 내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하는 부분, 능력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한국에 와서 살면서 많이 긍정적이 되었어요. (참여자 Y)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살아온 거, 겪어온 거가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뭐 남편과 갈등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 덕분에 제가 공부도 하고, 자신감도 많이 나아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잘 살아온 거 같아요. 뭐 괜찮은 거 같아요. (참여자 W)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신앙생활 경험의 의의와 본질을 비기독교인 결혼이주여성의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인 결혼이주여성 5명과 비기독교인 결혼이주여성 5명, 총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일

대일 면접을 수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각각의 개별적이고 고유한 경험의 본질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의 경험은 ‘힘들고 고된 일상으로 인한 소진’, ‘낮선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외로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지지와 어려움을 모두 경험’, ‘신앙을 통해 삶을 다르게 바라보며 힘과 소망을 가짐’의 4개 주제로 구조화되었으며, 비기독교인 연구 참여자의 경험은 ‘힘들고 고된 일상으로 인한 소진’, ‘낮선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외로움’,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와 상처를 모두 받음’, ‘힘겨운 시간을 통해 성장함’의 4개 주제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신앙생활 경험에 관한 논의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기독교신앙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과 교육 문제, 부부 갈등, 고부 갈등, 가정폭력 및 이혼, 언어 문제와 문화적 차이, 일과 육아의 병행, 차별과 편견, 부족한 사회적 지지, 외로움과 우울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김이선 외, 2006; 김한성·이유신, 2013; 민무숙 외, 2013; 이은주·전미경, 2014; 김진 외, 2015; 박영주 외, 2015; 신혜정 외, 2015; 박현선·정수정, 2017)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삶이 여전히 고달픈 것을 보면서 비제도적, 비공식적 지원의 필요함, 그리고 그러한 지원의 하나로써 교회의 역할의 의의와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Stone 등(2003)도 교회야말로 지역사회 내 가까이 있어 힘들고 어려운 때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location), 도움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교역자와 봉사자들이 있으며(availability), 장소와 절차의 제약 없이 상황과 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지지를 제공(mobility and flexibility of procedure)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개입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지지 체계이자 자원이라고 설명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신앙생활 경험을 통해 기독교 신앙만의 고유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삶과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고 있으며,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현재의 삶을 훈련 내지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일부 비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 역시 고된 삶과 어려움을 성장하는 계기, 전체 인생에서의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며 긍정적으

로 바라보고 극복하고 있긴 하였지만, 지금의 삶 이후를 바라보며 지금의 삶을 해석하는 것은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모습이었다. 결국 결혼이주여성의 신앙생활 경험에 있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금의 삶과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며 이겨내는 믿음, 그 과정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경험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을 믿음, 교회 출석, 기도 등의 개인적 신앙생활의 긍정적 의의를 확인한 선행연구들(Francis & Kaldor, 2002; Nooney & Woodrum, 2002; Stone et al., 2003)과도 일치하는 바다. 결혼이주여성의 신앙생활 경험의 본질이자 핵심이 ‘믿음’이라는 것은 관련 사역 내지 실천에 중요한 통찰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역과 실천에 있어서 재정적 어려움, 언어 등 문화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취약한 사회적 지지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외국어 또는 이주민 예배, 성경공부모임 등 개개인의 신앙이 자라고 강건해지도록 돕는 지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의 신앙생활 경험의 또 다른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한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 또는 혼자 해결하지 힘든 법적, 행정적 사안에 대한 도움을 받았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 많은 위로와 지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 심리적 행복, 삶의 만족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McIntosh et al, 1993; Bradley, 1995), 특히 이주민의 정착과 적응 과정에서 교회와 신앙생활이 큰 힘과 도움이 된다는(정효진, 2003; 전병철, 2013; Morris et al., 2007; Yoon et al., 2010; Baeq et al., 2011; Oh, 2013)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특히 구역모임 또는 소그룹 성경공부 등을 통하여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고, 마치 가족과 같은 든든한 지지와 소속감을 경험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은 교회 공동체의 비공식적 지지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한다. 이는 비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이 이웃이나 같은 출신국 사람들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공식적 및 비공식적 지지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깊이 있는 관계,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진실한 위로와 위안을 나누는 관계가 거의 없어 여전히 외롭고 힘든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 대비되는 바다.

한편 일부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은 오히려 교회 및 성도들로부터 어려움과 상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의 제약으로 인해 예배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성

도들로부터 편견이나 차별을 느낄 때도 있다. 교회의 지원이 감사하지만 때로 교회가 자신을 ‘도와야 할 사람으로만’ 바라보는 동정적 시선에 또 다른 차별을 느끼기도 한다. Taylor와 Chatters(1988)는 교회 및 성도들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성도 중 이혼한 사람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확인함으로써, 교회의 사회적 지지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고 취약한 사람에게 더욱 취약함을 보여준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이 교회 및 성도들로부터 편견 또는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교회 내 상담과 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지원이 충분해 보이지 않아, 보다 효과적이고 성숙한 실천을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 교회,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많은 지역의 교회에 대한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적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다. 오늘날 정부는 전국 21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포함)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힘겨운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보면서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과 영역, 문제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소외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시간적 제약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많은 지원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평일 오전 및 오후 시간(9:00 - 18:00)에 운영되고 있어, 직장에 다니는 결혼이주여성 또는 어린 자녀를 대신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지만 배울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태조사에서 연령 및 국내 거주 기간이 높아질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이 점점 낮아지고, 유배우자(45.1%)에 비해 이혼이나 별거(26.1%), 사별(20.7%) 등으로 혼자인 경우 이용률이 낮으며, 농어촌지역(61.4%)에 비하여 도시 지역(36.7%)의 이용률이 낮은 것도 지원센터의 제한된 서비스 시간, 내용 및 대상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정해숙 외, 2016). 이에 교회는 지역사회복지의 주요한 민간 주체의 하나으로써, 직장에 다니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평일 저녁 또는 주말 시간대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아기가 있는 여성을 위해 교육 중 보육서비스 제공(예를 들어 동시간대에 한국어교육과 아기학교 운영), 초기 적응 단계 이후의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예를 들어 전문적인 한국어교육, 사춘기 자녀를 위한 자녀 교육), 결혼이주여성 뿐 아니라 배우자와 시부모 등을 포함하는 다각화된 가족 교육과 상담, 집단 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

터를 통한 지원 범위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생 주기 내지 가족 주기에 따른 맞춤형 실천이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연구 참여자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문화적 차이가 느껴지고, 자녀가 성장할수록 자녀교육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며, 초기 적응 이후에 대한 전문적인 실천의 부족을 아쉬워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지원 기관의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결혼 초기 이주여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결혼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사람들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이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교육과 서비스,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이주여성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서비스 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오혜정, 2017). 따라서 인생 주기 내지 가족 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실천이 시급하며, 이는 동일한 구성원(성도)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체계인 교회에게 적합한 실천으로 볼 수 있다. 개인 및 가족 단위의 심방에서부터 교육, 집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실천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루지 못 하는 영역의 욕구와 필요를 해결해 나가되,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강점과 역량을 발견하고 교회 내외의 자원 연계를 통하여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회 내 중장년 여성 성도들과의 일대일 결연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에게 정서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2016)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문제와 외로움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로 말미암아 사회적 지지, 특히 가족과 친구 등의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가 단절되고, 언어의 제약으로 공식적 지원 기관을 찾기는커녕 외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교회의 가장 큰 자원 중 하나인 성도들을 통한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 제공은 큰 의의를 갖는다. 한 발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회 내 중장년 여성 성도들(예를 들어 권사, 집사 등)과의 일대일 결연을 통하여 한국의 ‘친정 엄마’를 선물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또 하나의 가족 내지 엄마의 존재는 매우 큰 힘과 지지가 될 것이다.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한국어 연습, 한국 음식 등의 문화사회적 적응 등에 도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신앙인간의 교제로서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에도 큰 격려가 될 수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 뿐 아니라 중장년 여성 성도에게도 나눔과 봉사를 통해 기쁨과 보람을 맛보고, 자기 자신 또는 삶의 의미를 재발

전하는 계기가 되며, 나아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훈련이 될 수 있다.

한편 이주민의 수가 계속해 증가하며 점차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교회의 사회복지 역할 내지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교계 내외의 욕구와 기대가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궁극적으로 다문화 내지 이주민 대상의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목회자를 비롯한 기독교 전문사역자들에 대한 기독교사회복지 및 다문화 교육,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교육과정 내 기독교사회복지 및 다문화 사역에 관한 교육 등이 도입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크다.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결혼이주여성 또는 이주민이 많은 경우, 전문 사역자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단 차원에서 각 교회 또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과 매뉴얼 등을 연구·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궁극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살아갈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다문화 감수성, 나아가 공감 역량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도 시급하다.

주의할 것은 ‘교회의 도움이 때로 결혼이주여성을 불쌍하게만 바라보는 또 다른 차별로 느껴져 좋지않은 않았다’는 한 연구 참여자의 진술처럼, 이러한 모든 실천과 연구개발 등의 노력에 있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 내지 ‘동반자’로 바라보며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면담, 욕구조사 등을 통해 삶의 실체가 어떠한지, 주요 어려움과 필요, 강점과 역량, 자원 및 지역사회 현황 등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천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결혼이주여성을 바라봄에 있어, 피해자 내지 도와줘야 할 대상 등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점과 잠재력에 초점을 두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또한 실천의 목적과 본질은 기독교에 있되 그 섬김의 대상과 영역에 있어서는 교회 안과 성도로 제한하지 않아 지역사회 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간 연구되지 못 한 결혼이주여성의 신앙생활 경험에 대하여 살펴본 탐색적 연구로 볼 수 있다. 이에 국내 거주 기간과 문화사회적 적응의 정도, 혼인 상태, 자녀 연령, 경제사회적 수준 등에 따라 그 경험이 매우 상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신앙 여부에 초점을 두어 연구자를 선정함으로 인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 한 한계를 갖는다. 특히 신앙생활 경험의 경우 주일 예배 참석 뿐 아니라

모국어 예배 여부, 개인 경건생활(큐티, 기도, 성경읽기 등), 교회 내외 봉사, 성경공부 모임이나 다른 신앙 공동체 활동 등에 따라 그 경험의 의의가 매우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 신앙생활 경험의 의의를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적 측면의 경험과 교회생활 측면의 경험을 구분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한다면, 결혼이주여성, 나아가 이주민에 대한 기독교사회복지 실천 논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가스펠서브 (2013). **교회용어사전**. 서울: 생명의말씀사.
- [Gospel Serve. (2013). *Glossary of Christianity*. Seoul: The Word of Life Press.]
- 강영실 (2010).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현황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교회의 과제 및 역할에 대한 소고. **교회사회사업**, 14, 135-161.
- [Kang, Y. S. (2010).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nd task and role of church for them. *Journal of Church Social Work*, 14, 135-161.]
- 김미원 (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사회적 지지와 가족의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Kim, M. W. (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Marriage Immigrant Women's Marital Adaptation by Acculturative Stress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Family Rituals -*.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김순규 · 이주재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한국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1), 5-20.
- [Kim, S. G. & Lee, J. J. (2010). The Effect of linguistic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adjustment among wom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5(1), 5-20.]
- 김승권 · 김유경 · 조애저 · 김성희 · 이건우 · 곽배희 · 박소현 · 신연희 · 정춘숙 · 채규만 · 현혜순 · 김은경 · 전영실 · 강은영 (2008). **20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02). 서울: 여성가족부.
- [Kim, S. K., Kim, Y. K., Cho, A. J., Kim, S. H., Lee, G. W., Kwak, B. H., Park, S. H., Shin, Y. H., Jeong, C. S., Chae, K. M., Hyun, H. S., Kim, E. K., Jeon, Y. S. & Kang, E. Y. (2008). *The Domestic Violence Survey in 2007*(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search Paper 2008-02).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김이선 · 김민정 · 한건수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2-07).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Kim, Y. S., Kim, M. J. & Han, G. S. (2006). *Policy Tasks for the Improvement of*

- Cultural Conflicts and Communication in Marriage Migrant Women*(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operative Research Series 06-02-07). Seoul: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김진 · 이종운 · 김영숙 (2015).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41(2), 79-103.
- [Kim, J. Lee, J.U, & Kim, Y. S. (2015).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empowerment of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Social Science*, 41(2), 79-103.]
- 김한성 · 이유신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 특성과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2), 177-209.
- [Kim, H. S. & Lee, Y. S. (2013). Life satisfaction among marriage-immigrant women: focusing on social context and social discrimina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7(2), 177-209.]
- 김혜금 · 조혜영 (2013).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 자아인식 및 양육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6), 1-14.
- [Kim, H. G. & Cho, H. Y. (2013).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parenting stress, self-perception and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mothe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3(6), 1-14.]
- 문창선 (2016). 국내 이주민 선교 시대에 즈음하여. **제15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 (2016.11.24-25).
- [Moon, C. S. (2016). The age of the migrant missions in Korea. *The 15th Forum for Korean Mission Leaders*(2016.11.24-25).]
- 민무숙 · 김이선 · 주유선 · 이정연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양상을 통해 본 사회통합의 과제. *여성연구*, (85), 5-43.
- [Min, M. S., Kim, Y. S., Joo, Y. S. & Lee, J. Y. (2013). A study on social relationships of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its implications for social integration. *The Women's Studies*, (85), 5-43.]
- 박미정 (2011). **결혼이주여성 이혼 경험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Park, M. J. (2011). *A Study on the Divorce Experienc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 박영주 · 윤동화 · 김원진 (2015). 국제결혼 여성의 가족 해체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9(3), 163-188.
- [Park, Y. J., Yun, D. H. & Kim, W. J. (2015).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 experience of international marriage of women in family breakdown.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9(3), 163-188.]
- 박은희 · 조인주 (2012).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2), 29-54.
- [Park, E. H. & Cho, I. J. (2012).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8(2), 29-54.]
- 박천웅 (2010). 다문화 이주민을 향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 **제2회 기독교사회 복지엑스포**(2010.10.13-16).
- [Parl, C. E. (2010). Missional tasks of Korean churches for multi-cultural migrants. *The 2nd Christian Social Work Expo*(2010.10.13-16).
- 박현선 · 정수정 (2017).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영역간의 종단적 상호관계. *한국가족복지학*, 56, 197-224.
- [Park, H. S. & Jeong, S. J. (2017). The longitudinal interrelationships of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56, 197-224.]
- 박홍순 (2013). 호남지역 다문화선교의 현황과 과제. *선교와 신학*, 32, 179-212.
- [Park, H. S. (2013). A study on multicultural mission in the Honam region. *Mission and Theology*, 32, 179-212.]
- 신경림 · 조명옥 · 양진향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Shin, K. R., Cho, M. O., Yang, J. H.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Ewha Press]
- 신혜정 · 노충래 · 허성희 · 김정화 (2015).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7(3), 5-29.
- [Shin, H. J., Nho, C. R., Heo, S. H. & Kim, J. H. (2015). A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with acculturative stress for marriage-based 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7(3), 5-29.]
- 양만재 (2016). 반-억압실천론(Anti-oppressive practice)의 도입과 활용의 필요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실천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53, 96-145.
- [Yang, M. J. (2016). A study on anti-oppressive practice: possibilities and constraints of usefulness and need in Korean social work. *Journal of Critical Social Policy*, 53, 96-145.]
- 여성가족부 (2017). **2017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7). *Guide to Multicultural Family*

- Support 2017.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오혜정 (2017). 한부모 이주여성의 삶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자녀양육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7, 39-67.
- [Oh, H. J. (2017). A Phenomenological Study of Lives of Immigrant Single Mothers - Focused on the Parenting Experiences -.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57, 39-67.]
- 이광희 (2010). 한국교회의 '다문화 가족 사역'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신학**, 12, 218-237.
- [Lee, K. H. (2010). A study on the intercultural ministry of the Korean church. *The Pierson Memorial Journal of Theology*, 12, 218-237.]
- 이남인 (2005). **현상학과 질적 연구**. 파주: 한길사.
- [Lee, N. I. (2005).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Paju: Hangilsa]
- 이수환 (2015). 다문화 이주민을 위한 선교적 목회의 역할. **복음과 선교**, 30(2), 49-82.
- [Lee, S. H. (2015). The role of missionary ministry for multicultural immigrants. *Evangelical Missiology*, 30(2), 49-82.]
- 이은주 · 전미경 (2014).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인 메타분석. **한국사회정책**, 21(4), 9-44.
- [Lee, E. J. & Jun, M. K. (2014). A meta-analysis of the related variables with marital satisfaction for marriage migrant women. *Korea Social Policy Review*, 21(4), 9-44.]
- 이형하 (2010).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3), 219-245.
- [Lee, H. H. (2010).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mmunity participation experienc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2(3), 219-245.]
- 이혜경 · 전혜인 (2013).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4), 413-432.
- [Lee, H. K. & Jeon, H. I. (2013).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marital satisfact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8(4), 413-432.]
- 임성빈 (2013). 다문화사회와 교회의 역할 모색 - 인권과 문화통합을 위한 토대제공의 관점에서. **기독교사회윤리**, 27, 305-333.
- [Yim, S. B. (2013). Multicultural society and roles of Korean church: from the perspective of preparation for human rights and social cultural integra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ocial Ethics, 27, 305-333.]

장영신 · 정상우 (2015). 다문화사회 이주노동자에 대한 개신교 교회의 역할 연구-
랄프 윈터(Ralph D. Winter)의 개신교 교회의 모델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1(2), 183-214.

[Jang, Y. S. & Chong, S. W. (2015). Support for immigrant workers of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 focused on the types of church by Ralph D. Winter -.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1(2), 183-214.]

전병철 (2013). 미국 이민사회에 적응해가는 1세 이민자들의 문화적응 과정과 교회
의 역할. *개혁논총*, 27, 219-259.

[Jun, B. C. (2013). Acculturation process of the first 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California and the role of local churches as learning community. *Korea
Reformed Journal*, 27, 219-259.]

정명희 (2013). 사회적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모효능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8), 258-277.

[Jung, M. H. (2013).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practices
of immigrant women focusing on parent 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8), 258-277.]

정해숙 · 김해숙 · 이택면 · 마경희 · 최윤정 · 박건표 · 동제연 · 황정미 · 이은아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03).
서울: 여성가족부.

[Jung, H. S., Kim, H. S., Lee, T. M., Ma, K. H., Choi, Y. J., Park, G. P., Dong,
J. Y. Hwang, J. M. & Lee, E. A. (2016). *A Study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5*(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2016-03).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정효진 (2003). **호주 한인교회와 이민자들의 사회 문화적 적응: 시드니 S 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Jeong, H. J. (2003). *Korean-Ethnic Church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of
Immigrants in Australia : a case study of 'S' church in Sydney*. Masters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최신일 · 황병준 (2015).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 실태 및 선교 방향성 연구. *신학과
실천*, (43), 595-622.

[Choi, S. I. & Hwang, B. J. (2015). A study on mission for immigrants in the
Korean church - current conditions and direction for the Korean church's immigrant

- mission -. *Theology and praxis*, (43), 595-622.]
- 통계청 (2017). **인구동태통계연보 2016**. 대전: 통계청.
- [Statistics Korea (2017). *Annual Report on the Vital Statistics 2016*. Daejeon: Statistics Korea.]
- 한혜빈 (2014). 선교적 차원에서 바라본 한국의 다문화 가정. **신학과 선교**, 44, 299-337.
- [Han, H. B. (2014). Multiculture family of Korea on the missional perspective. *Theology and Mission*. 44. 299-337.]
- Baeq, D. S., Lee, M. H., Hong, S. P. & Ro, J. (2011). Mission from migrant church to ethnic minorities: a brief assessment of the Korean American church in mission.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39(1), 25-37.
- Bradley, D. E. (1995). Religious involvement and social resources: evidence from the data set "Americans' changing liv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4, 259 - 267.
- Francis, L. J. & Kaldor, P.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hristian faith and practice in an Australian population sampl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1(1), 179-184.
-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Dquensne University Press.
- McIntosh, D. N., Silver, R. C., & Wortman, C. B. (1993). Religion's role in adjustment to a negative life event: coping with the loss of a chil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812 - 821.
- Morris, C., Vokes, R. & Chang, S. (2007). Social exclusion and church in the experiences of Korean migrant families in Christchurch. *A Journal of Social Anthropology and Cultural Studies*, 4(2), 11-31.
- Nooney, J. & Woodrum, E. (2002). Religious coping and church-base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mental health outcomes: testing a conceptual model.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1(2), 359-368.
- Oh, S. H. (2013). Spatial assimilation and ethnic church linkages: suburban Koreans in Bergen County, New Jersey. *Studies of Koreans Abroad*, 29, 45-79.
- Stone, H. W., Cross, D. R., Purvis, K. B. and Young, M. J. (2003). A study of the benefit of social and religious support on church members during times of crisis. *Pastoral Psychology*, 51(4), 327-340.
- Taylor, R. J. & Chatters, L. M. (1988). Church members as a source of informal

- social support.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0(2), 193-203.
- Yoon, E. J., Lee, D. Y. Goo, Y. R. & Yoo, S. K. (2010).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Korean immigrant women's liv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8(4), 523-553.
- Young, I. M.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논문초록

결혼이주여성의 신앙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비교를 통해서

오혜정 (충신대학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삶, 즉 가족생활과 자녀양육,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과 정착, 사회생활 등의 삶 전반에서 신앙생활 경험이 갖는 의의와 본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기독교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5명과 종교가 없는 결혼이주여성 5명, 총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일대일 면접을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의 의의와 본질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의 삶과 신앙생활 경험은 ‘힘들고 고된 일상으로 인한 소진’,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외로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지지와 어려움을 모두 경험’, ‘신앙을 통해 삶을 다르게 바라보며 힘과 소망을 가짐’의 4개 주제로 도출되었고, 비기독교인 연구 참여자의 삶의 경험은 ‘힘들고 고된 일상으로 인한 소진’,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외로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위로와 상처를 모두 받음’, ‘힘겨운 시간을 통해 성장함’의 4개 주제로 요약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신앙생활, 현상학적 연구, 기독교사회복지, 이주민 사역